

안경환의 법과 문화



안현수와 ‘빅토르 안’ - 올림픽의 허상

지난 24일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세계인의 겨울축제가 막을 내렸다. 4년 후에는 대한민국의 평창에서 다시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된다. 중동, 아프리카 인의 냉소와 ‘겨울 왕국’들의 선망 속에 열리는 잔치기도 하다. 불과 열흘 남짓 전의 일인데도 사람들의 뇌리에서 쉽게 사라져 간다.

소치에서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일갑을 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의 ‘안현수’가 러시아의 ‘빅토르 안’이 된 배경을 챙기라는 지시였다. 8년 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의 3관왕으로 가히 쇼트트랙의 황제로 군림했던 그였다.

그 자랑스러운 대한의 건아가 아직도 ‘붉은 군대’의 위협이 국민적 기억의 잔재 속에 남아있는 러시아의 국기를 흔드는 새 영웅으로 부활하더니! 오로지 선수생활을 계속하고 싶었을 뿐이라는 안현수의 개인적 소회에 공감하면서도 씁쓸한 마음을 금치 못하는 국민이 적지 않았다.

대통령은 한국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한시 바빠 척결해야 할 ‘비정상’의 실례로 들었다. 시기의 적절 여부를 떠나 백번 옳은 말이다.

빙상연맹과 대한체육회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도 난리를 쳤다. 검찰도 강력 수사의 뜻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른다. 이 또한 일시 스쳐가는 소나기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스포츠계의 엄청난 비리와 인권 유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누적된 우리의 고질병이기 때문이다.

애초 국제 스포츠는 ‘현대판 전쟁’의 성격을 띠었다. 국력을 과시하는 국제 전시장이었다. 그래서 스타는 곧 명장이다. 국민 스타에게는 국민적 명예와 보상이 주어진다. 공정하고 평등한 한국사회의 상징인 군복무조차 면제된다. 두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은 정치인에게 대통령 자리를 거부한 국민인대도 많다.

만연한 증상을 뻔히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것은 전 국민이 공범이기 때문이다. 올림픽 스포츠, 국가와 가족이 충직한 공범이라 할 수 있다. 성공한 선수 가족은 국가의 축복 아래 화려한 언론의 조명을 받는다. 영광의 이면에 깔린 인고의 세월이 반추된다.

우리의 학교는 인간이 아니라 ‘기계들’의 각축장이다. (다수의) 공부하는 기계와 (소

수의) 운동 기계의 집합소이다. 우리나라 운동선수만큼 가련한 인간 기계가 또 어디 있을까. 운동선수를 장래 목표로 선택하는 순간부터 비극은 예정된 것이다.

기초화력과 정상수업은 헛된 소망이다. 소풍, 수학여행, 학원도 국도의 사치다. 합숙훈련은 군대의 축소판이다. 훈련의 명분으로 자행되는 폭력도 즐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오로지 ‘1등만 알아주는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해야만 한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도 서럽게 울어야 한다. 기계세상의 최대 비극은 오로지 최상의 기계만이 빛을 발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잠시 동안. 성년이 처진 기계는 즉시 도태된다. 한 사람의 스타가 탄생하기까지 수만, 수십만의 낙오자가 양산된다. 낙오자는 실패 할뿐 없다. 모처럼 데이트에 나선 ‘대졸’ 선수가 약속 장소를 찾지 못해 돌아왔다는 실화가 있다. 외국어로 된 간판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것이다.

기초화력조차 갖추지 못한 무수한 중도탈락자가 어디서 무얼 하는지 믿을 만한 통계조차 없다. 일부는 조폭이나 일용직 철거반과 같은 어두운 지하세계에서 청춘을 죽이

고 있으리라 짐작할 뿐이다.

올림픽 현장은 인간의 균형 있는 개발과 존엄을 구현하는 평화사회의 구현을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스포츠는 인권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소치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다행스럽게도 선수도, 국민도 과거보다 성숙하고 의견해졌다. 더 이상 은메달을 따고도 울지 않았고, 목표로 내세웠던 ‘종합 10위’에 들지 못했다고 질책하지도 않았다. 올림픽의 기록은 운동 기계들의 성능 테스트일 뿐, 국민의 건강이나 체력과는 무관하다.

제대로 놀지 못하는 아이들이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미래의 자산이 될 수 없다. 그 흔한 말로 건전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은 함께 배양되는 것이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2018년 평창이 우리를 기다린다. 이제는 인간기계 대표선수의 탐금질보다 국민의 인식 전환이 더욱 절실한 때다. 스포츠는 성능 좋은 기계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건전하고 균형 잡힌 성숙한 인간을 만드는 교육임을 깨쳐야 할 때다.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가인권위원장〉

종교칼럼

목숨을 담보로 한 자기 신앙 관리



이원재
광주무등교회 목사

바벨론이란 막강한 나라가 있었다. 이 나라는 느부갓네살왕 때 유다국을 멸하고 백성을 포로로 잡아 70년간이나 괴롭혔다. 바벨론 성에는 그 유명한 바벨탑이 있었다.

또 다른 왕 다리오는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총리 셋을 두어 고관들이 직무를 보고하게 했다. 그때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통찰력을 갖춘 사람이었다. 왕은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려고 했다. 왕은 그를 수석 총리로 내세웠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말처럼,

왕의 총애를 받는 다니엘을 시기한 자국의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제거할 모책을 찾아내려고 했다. 하지만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했다.

그러다가 모책이 생겼다. 다니엘은 유다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걸자.” 다른 총리들과 고관은 이를 이용하기로 했다. “왕이여!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노이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하소서. 또 왕이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누구도 이 금령을 못 고치게 하소서.”

그러자 왕은 조서에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다. 이때부터 다니엘은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야비하고 무서운 책략이었다. 세상은 옳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중 놈두지 않는다고 한다.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린다고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의 안주를 위해 시류에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의지

를 펴다가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인가.

다니엘은 이런 파위의 책략과 모략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그 명을 어기면 곧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혀 개의치 않고 평소와 같이 자신의 일을 행하고, 믿음을 두텁게 했다. 오히려 자기 집 뒷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해 난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해 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 아마 겁부터 났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 이 난관을 피해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다니엘의 지혜와 믿음, 소신을 배워야 한다.

그는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고인도 하지 않았다. 평소대로 한 것이다. 거기에는 그만의 확신과 용기,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범하고 담대했다. 아니 자신의 신관을 확실히 보여주는 기회로 삼았다.

보란듯이 창문을 활짝 열어 쫓겼다. 자신을 감시하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언젠가는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며 기도를 올렸다. 그는 평소에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었다. 하루속히 고국에 돌아가 무너진 성을 쌓고, 굳게 닫힌 성전의 문을 열고, 예전과 같이 마음 놓고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다.

그는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우리는 이런 경우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만 할 것이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최선을 다해 살지 않았느냐고, 하나님도 무심하시다고,’ 얼마든지 뉘우치나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다. 다니엘은 모든 것을 감수하고 신에게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았다.

나중에 다니엘을 감시했던 무리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리는 것을 발견하고, 왕에게 이를 보고한다. 하지만 다니엘을 살펴보면 그는 최초로 사자의 털을 이불 삼아 잠을 잔 사람이 되었다. 정직하고 충성스런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도 알아보았던 것이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 전능하신 그의 하나님 그의 신이 하신 것이다. 우리 모두 조금은 힘이 들고 어려워도 소신 있게 살아가자.

기고

쌀은 우리가 지켜야할 소중한 먹거리



이상진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양곡자재팀 팀장

우리 생명의 근원인 쌀! 한톨의 쌀을 수확하기까지는 여든 여덟 번의 농부(農夫) 손길이 필요하며, 흘리는 땀방울은 일곱말이라고 한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선조들은 가정에서 한 톨의 쌀이라도 씻은 물에 떠내려 보내지 않으려고 귀히 여겨왔다.

쌀로 밥과 술, 떡, 수정과, 엿, 한과, 송편 등 많은 음식을 만들어 먹었으며 볶짚도 한 잎 버리지 않고 이엉을 틀어 지붕에 얹고, 새끼를 꼬아 가마니를 짜고, 명석을 틀고, 짚신을 만드는 등 갖가지 생활도구를 만들어 쓰는 전통과 문화는 우리의 삶 그 자체였다. 또 설거지 후에 버려지는 물속의 찌꺼기를 걸러 그 속에 가라앉은 밥알들을 한 톨도 남김없이 거두어 깨나 돼지

의 먹이로 나눠주는 것은 쌀 한 톨의 경중(耕種)을 익히 알고 있어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귀히 여겨온 우리의 소중한 먹거리 문화였다.

하지만 요즘 쌀은 천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사상 유래없는 풍년의 여파와 소비감소 등 심리적인 요인까지 작용하여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7.2Kg로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를 하루 소비량으로 환산했을 경우 184g에 불과해 한사람이 하루에 두공기(200g)도 채 소비하지 않은 셈이다. 1인당 쌀 소비량은 1984년 130.1kg을 기록한 이래 최근 10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감소하고 있다. 반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커피시장은 2010년 통계치 기준 국내시장만 2조 6000억원 규모이다.

1인당 연간 커피소비량도 약 312잔이라고 한다. 성인 1인당 매일 1잔의 커피를 마시는 셈이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자판기커피 1잔의 값이 400원이다. 반면 밥 한공기는 약 200~250원이다. 우리의 주곡인 쌀의 가치를 만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쌀 값 하락은 곧 농업의 포기와도 같다. 쌀은 문화와 경제적까지 그리고 안보차원의

중요한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쌀값하락은 농업인만의 어려움이 아니고 우리국민 모두의 숙제이고 함께 해결 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최근 한 언론기사에 따르면 쌀은 태국(24.4%),베트남(20%),인도(16.3%),미국(9.7%),파키스탄(9.6%)이 전 세계교역의 80%의 수출을 장악하고 있는 “공급자 과점시장”의 대표적인 곡물 이라고 했다. 또 수출국에서 소비 후 남은 양을 해외로 수출하는 원시적인 시장 구조로 되어 있다고도 한다.

우리가 먹고 있는 자포니카 계통(短粒種)의 쌀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중국의 동북3성, 미국의 캘리포니아,호주 등에서 생산되고 있다. 전체 쌀 교역에서 자포니카 계열의 중단립종 쌀 비중은 5~10%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중단립종 쌀 수입선은 미국 캘리포니아와 중국 동북 3성 2곳 뿐이다. 여기에 중국이 2011년부터 쌀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많은 순수입국으로 바뀌면서 ‘중국발 쌀 값 파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구촌에 이상기온으로 인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도 2년 정도 대 흉년이 든다고 가정해보면 자포니카 쌀을 구하기 위해 온 세계에 구걸을 해야 할 불행한 날이 오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쌀은 우리가 보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행히 최근에 쌀이 주곡(主穀)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출시가 되면서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매년 줄고 있는 국민1인당 쌀 소비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식품이 개발되도록 해야 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유식과 학교급식에 쌀 가공식품이 포함되도록 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쌀 음식과 친숙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와 최종점에 있는 유통업체는 쌀을 미끼상품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우리농업을 위기에 빠뜨릴수 있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음리 없지만 다산 선생께서 설화한 ‘농자 천하지대본’이란 말이 오늘날과 가슴에 더욱 와 닿는다.

社說

기초선거 ‘무공천’ 보완 대책 필요하다

민중당과 새정치연합이 최근 제3지대 신당 창당에 의기투합하게 된 핵심 고려는 기초선거 무공천이다. 기초단체장·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은 장·단점이 혼재하지만 그동안 선거에서 패권매직형 공천비리와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측화로 인한 부작용이 극심했다는 점에서 이를 개혁하기를 바라는 국민이 훨씬 많았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이의 폐지를 앞다퉈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유다. 그런 점에서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위원장의 선언은 약속을 지키는 정치이자 새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쫓은 통 큰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새누라당이 정당공천을 유지하면서 여야가 서로 다른 틀 속에서 게임을 치르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문제는 기초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정당이 후보를 검증한 뒤 본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게 했지만 이제는 유권자가 직접

후보들을 가려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사실상 신당 후보자 일색인 광주·전남 유권자들은 더욱 그렇다.

유권자 수가 적거나,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한 일부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는 조직과 돈을 앞세운 ‘토호세력’간 힘겨루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고,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뒷거래도 우려된다.

일부 후보들은 무공천으로 인해 후보가 난립하면서 현역 단체장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가 됐다면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제한적이거나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정치신인과 여성, 장애인 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나 학계, 언론 등은 후보자의 자질 및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증은 물론 혼탁선거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한다. 유권자의 책임이 커진 만큼 후보검증단 운영도 필요하다. 정치권과 선관위도 함께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신안 새천년대교 공사 비리 복마전이라니

익산지방공도관리청이 발주한 신안 새천년대교 공사 과정에서 갑을 관계의 업체들끼리 뒤통 거래와 함께 공사비를 착복하는 등 비리 복마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적발된 비리 혐의자 10명 가운데 현장소장과 감리업체 직원 은 외제차를 상납받거나 10억 원대의 ‘검은 돈’을 횡청망창 써왔다고 한다.

전남지방경찰청에 구속된 대우건설(시공사) 현장소장 박모씨는 하도급사인 도양기업 현장소장 김모씨에게 공사비를 올려주는 조건으로 2억 원과 1억 2000만 원짜리 아무디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구속된 김씨 역시 납품업체들에게 자재를 사들이면서 부풀린 대금차액 1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1년 7개월 동안 불상품에서만 5억 원을 탕진하는 작태를 서슴지 않았다. 감리업체 직원들은 착복한 돈 5000만 원으로 부부동반 여행을 갔다 오고, 수차례 향응도 받았다고 한다.

납품업체→하도급사→시공사로 이어지는 삼남 고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지만 부실 시공을 부른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장소장과 납품업자, 감리 직원까지 한통속이 된 마당에 공사 진행과 감독이 제대로 될 리 없고, 납품 자체 또한 하자 가능성이 커진 때문이다. 지금까지 발생한 대형사고의 원인이 부실 공사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건설당국의 비리가 터질 때마다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술방망이 처벌’과 비리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게 주된 요인이다.

경찰은 금품수수가 더 있었는지, 감독 기관의 목인이 있었는지 밝혀내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 익산청과 지자체는 이번 에 적발된 건설사와 감리·하도급 업체에 대해 공공부문 입찰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 하도급의 비리 구조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소설가 황순원(1915~2000)은 경희대 국문과 교수로 26년을 재직했다. 그는 어떤 보직도 마다하고 평교수로 평생을 보내며 후학들을 가르치는 데 전념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문학인들의 면면은 화려하다. 소설가 조세희·조해일·고원정·이혜경·김형경·서하진을 비롯해 시인 정호승과 이상부 등 쟁쟁한 인물들이 많다.

조선대 문예창작학과는 10년 남짓 역사는 짧지만 문학도들에게 인지도가 높다. 이승우·나희덕·

조선대 문장과

내가 읽은 문학 작품을 전문가가 어떻게 독해했는지 궁금해 글을 읽다 보면 오히려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만다. 너무도 현학적인 글을 쓰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 씨의 글은 평론가들에게서 사는 꼴이지만 문학도들에게 인지도가 높다. 이승우·나희덕·

글을 쓰는 것처럼 극히 개인적인 작업도 없을 거다. 하지만 좋은 스승과의 만남이 더해진다면 작가에게는 든든한 후원군이 생기는 셈이다. 이수진 씨가 한 인터뷰에서 “이승우 선생의 ‘너 잘 쓴다. 소설 써 보라.’는 한 마디에 미친

듯이 글을 썼다.”고 밝힌 것처럼. 막강 조선대 문창과 교수진에 또 한 명의 문학계 스타가 합류했다. 문학평론가 신형철 씨다.

평론가의 비평은 때론 혼란스럽다. 내가 읽은 문학 작품을 전문가가 어떻게 독해했는지 궁금해 글을 읽다 보면 오히려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만다. 너무도 현학적인 글을 쓰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 씨의 글은 평론가들에게서 사는 꼴이지만 문학도들에게 인지도가 높다. 이승우·나희덕·

옛보다 그가 소개한 책들은 “꼭 한번 읽어 봐야겠다.”는 욕구를 갖게 만든다. 신 씨가

영화 잡지 ‘씨네 21’에 연재하는 ‘신형철의 스토리텔링’, 그가 진행을 맡고 있는 팟캐스트 ‘문학동네 채널 1-문학 이야기’ 역시 문학 작품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로 팬들을 확보하고 있다.

제일 행복할 이들은 ‘갑작 선풍’을 받은 문창과 학생들일 거다. 신 씨의 글을 빼놓지 않고 읽는 지인은 그의 임용 소식에 ‘부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역사회도 막강 문창과 교수진들의 혜택을 좀 볼 수 있을 종됐다. 좋은(?) 건 물건이 댔든 사람이 댔든 나눠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제 작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7-9600 〈F A X 227-9500〉 다 자 인 실 2200-536 프로젝트팀 2200-55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세 자 실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